

조공

전재성

o 작업의 주요 내용: 조공에 대한 개념, 용례의 조사

1. 중국 고대 조공 개념의 시원, 중국 내부의 군신 간 조공
2. 중국 왕조가 조공을 바친 사례(김위현의 논문)
3. 한반도 왕조의 조공 사례에서 문명 사대의 조공 사례
4. 한반도 왕조의 조공 사례에서 실리주의 조공 사례
5. 한반도 이외 왕조, Sinic zone인 베트남, inner Asia zone인 유목민의 조공 사례

o 문제의 제기와 개념적 구분작업

- 조공이라는 구체적인 대외관계의 practice를 연구함으로써 동아시아 왕조 간 관계의 본질을 밝히는 노력
- 기존 연구: 역사학계에서 상당한 실증적, 미시적 연구 축적. 한중일, 서구의 서로 다른 시각들이 다수 각축. 문헌연구를 통한 개념적 접근도 상당 부분 축적. 새로운 연구경향은? 국제정치학, 비교국제사회의 시각과 새로운 개념사적 시각이 필요.
- 조공은 서주시대 은왕조를 정복한 문왕이 총 71개 제후국을 분봉. 이를 다스리는 과정에서 최초로 조공제도가 시원. 조는 주천자에 대한 제후들의 친견, 공은 함께 증정했던 예물. 정치적 권력관계의 현실과 상징적 행위가 결합된 practice. 주례 및 예기의 기록(이춘식)
- 군사적 복속/정복(1차적) -> 조공(외교관계 수립 및 재화, 서비스 교환, 이를 통한 상징적 상호작용, 2차적) -> 정삭, 책봉(국내정치를 포함한 정치 지배계급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 수립, 3차적) -> 사대자소(이념적, 문명적 담론, 사상 형성, 4차적)
- 군사적 복속/정복은 개념화의 긴장 및 개념의 불확정성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험적 연구방법의 대상. 반면 조공은 물질적 교환과 더불어 정치적 관계 형성의 상징성, 해석의 개방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이면서도 해석적인 연구의 대상. 개념사의 방법이 주효할 수 있다고 생각.
- 책봉과 사대자소 역시 개념사, 담론분석의 대상일 수 있지만, 보다 복잡한 국내정치 상황 및 사상적 배경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므로 개념사보다 상위의 접근이 더 나올 수도.
- 지역의 획정 문제에서 interaction density개념을 중시할 경우 군사적 충돌의 밀도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조공의 밀도가 중요해지며 조공에 대한 연구는 동아시아 질서

의 인문지리적, 비판지정학적 경계획정에 중요한 요소가 됨.

- 조공관계와 조공체제의 구별 필요성. tributary relation과 tributary system. 페어뱅크가 사용하는 개념은 조공체제로서 단순히 조공만을 메카니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조공을 포함한 interaction system 전체를 보는 개념. 전통 지역질서에서 조공관계가 실리적, 가변적으로 성립된 상황인지, 아니면 조공을 매개로 질서 혹은 패러다임이 성립된 것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문헌이 필요(契丹國志 등)
- 가변적, 실리적 조공관계가 지배하는 시기, 혹은 질서의 패러다임 vs. 안정되고 이념적으로 정당화된 조공체제가 정착된 시기를 구별할 필요.
- 전자의 경우는 군사력의 배분구조가 가장 중요한 시기로 조공관계는 군사관계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상황. 후자의 경우는 군사력의 배분구조가 기초를 이루지만 이를 정치적, 사상적으로 정당화하면서 정체성의 변화를 야기하여 보다 지속적인 관계가 성립된 상황. 조공은 이러한 관계의 일부로 변화됨.
- 한반도의 상황에서 전자는 New Korea History(신고려사)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전형적인 시기는 10세기에서 13세기.
- 후자는 동주의 패러다임으로 중세의 보편적 문명성립에 기초한 이념적, 문명적 지역질서.(권순홍 참조)
- 조공을 통한 전통국제질서 연구는 시기구분이 중요한데, 지역질서가 현실주의/실리/전략적 패러다임의 시기인지 천하/안정된 위계/문명적 패러다임의 시기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필요함. 조공은 개별적 개념이 아니라, 질서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여주는 indicator로서의 개념이며 두 패러다임의 교호, 전통적 말안장의 굴곡의 변화를 탐구하는 실마리로 잡을 수도. 전해종의 경우는 조공관계/준조공관계/비조공관계로 구분.
- 동주 패러다임에서 중요한 것은 군사력이 실제로 약화되더라도 기존 천하질서의 관성이 어떻게 유지되는가 하는 것인데, 군사력의 불균등 발전만큼 문명생산력의 불균등 발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중원 왕조가 보편중세의 시대에 다른 왕조들보다 월등히 문명생산력의 우위를 점할 수 있었고, 특히 사상, 지식의 측면에서 정체성에 기반한 질서를 수립할 수 있는 힘을 소유.
- 일단 이러한 질서가 성립되면 한반도 왕조는 중원왕조가 군사력으로 약화되거나, 조공관계에서 경제적 실익을 빼앗기더라도 문명중심에 대한 사대관계를 지속하는 경향.
- 따라서 사대자소 질서의 보편화과정은 1) 중원왕조의 군사적 우위(최소한 질서성립기에라도); 2) 다른 왕조를 침략해서 다스리지 않는 우호적 주변국 전략관계 유지; 3) 질서가 미치는 전 지역을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와 사상의 우위를 확보, 즉 문명표준의 우월성 유지; 4) 다른 왕조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면서 다른 왕조의 정치 지배집단과 긴밀한 상호 정당성 제공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21세기에 중국 중심 전통질서가 부활하려고 해도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단순히 중국의 군사력/경제력의 월등한 우위로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어야 함.

○ 고려의 재발견

- 고려 왕조의 대외관계는 시작부터 중원의 치열한 패권 각축의 환경적 변화를 전제로 함. 통일신라-당의 비교적 안정된 문명사대질서가 붕괴된 이후, 혼란을 겪고 송이 성립했으나 곧 거란, 여진, 몽고의 발흥으로 인해 북송이 멸망하고 남송시대가 열림.
- 이 과정에서 고려의 대외정책은 실리, 전략 외교로 특징지워짐. 고려의 대외정책을 사대사소라는 문명적 개념으로 분석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관계적 조공과 군사전략으로 대외관계를 이끌어 감. 조공체제라고 할 수 있는 정치적, 문명적, 연속적 관계 수립이 사실상 부재. 송은 문명적 사대를 앞세워 군사적 실리를 요구하는 대송 충성외교를 고려에 강요했지만 고려는 사실상 이를 거부.
- 고구려의 조공외교도 비슷한 평가. 남북조 시대에 남조와 북조에 공히 견조하지만 국제상황에 대한 실리적 접근, 내치 자주 확보. 수당 80년 동안 중북 시기에도 마찬가지. 무리한 요구의 거부(북위의 청탁을 거절한 장수왕의 사례 등 다수).
- 피터 윤의 논지는 전형적 문명사대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조공체제가 고려-원 시기에 성립하였으며, 조선-명의 조공체제의 기원이 려원관계에 있다는 주장. 통일신라-당의 조공체제의 영향력이 시간차를 보면 사실상 엷어졌다는 전제 하에 의미 있는 주장.
- 중국의 중원왕조가 주장하는 조공관계의 논지가 사실상 중국이 힘이 약해지고 조공을 바치는 역사를 거치면서 이를 역으로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개념과 논리가 발전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
- 고려는 주변 강대왕조 간 세력균형 상황에서 조공의 대상을 변화했지만, 어느 한편에 치중하는 외교는 가급적 피함. 송, 요, 원은 고려가 자신의 편에서 적을 공동 공략하기를 바랬지만 고려는 buck-catcher역할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더 연구가 필요한 주장).
- 현재 한국외교의 전략적 원형을 조선이 아닌 고려에서 찾는다며(광해군 외교 정도가 예외), 고려 외교에 대한 상세한 개념적 구분이 필요. 동맹 외교? 중립 외교? 편승 외교? 균형자 외교? 등. 현재 한국 외교의 방향성을 정당화하는 논리로도 사용될 수 있음.

o 동아시아 전통 질서의 이론화

- 조공제도의 시원을 어떻게 볼 것인가. 현실적 정치, 권력 논리 vs. 이념적 집합체성의 논리. 이춘식의 논문에 따르면 주왕조(씨족연맹성읍국가로서)는 嬖씨 혈연관계와 정치논리가 결합된 질서의 매개로 조공이 상정됨. 朝觀과 공물 납부를 어길 시에는 관직 강등, 영토 회수, 정벌 등의 명확한 징벌이 따르게 되어 있었음. 춘추전국 시대의 기본 단위는 형식적 평등, 내정불간섭에 기초한 영토국가라는 논지. 會, 盟의 국제회의 및 동맹체제가 가동. 약소국은 朝觀, 貢賦의 의미를 가짐. 국력 차이에 근거한 현실적 정치관계를 뒷받침하는 체제로서의 조공질서. 약속국의 완강한 저항으로 직접지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조공이 평형점을 이룸.
- 중원이 분열된 춘추전국 시대에 이민족과의 조공관계가 성립됨. 이는 중원 내부의 정치적 경쟁관계와 맞물린 조공관계. 한왕조가 성립된 이후 한은 내부적으로는 군현제와 봉건제를 결합한 군국제도를 실행하여 조공제도를 정비. 과거 봉건적 조공과는 다른 중앙집권 군현적 조공으로서 국내정치의 원칙이 달라진 상황임.
- 흥미로운 점은 외부적으로는 흉노에 대해 공주를 바치고 막대한 재화를 제공하는 조공의 증공국의 지위가 됨. 漢書의 기록에 따르면 한-흉노 관계는 상하, 수족, 군신관계.
- 조공체제, 혹은 사대자소질서는 중원의 한족 왕조가 아닌 동아시아 전체가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 나갔다는 명제를 생각해 볼 필요. 현재 중국의 국경을 결정한 것은 원의 확장과 청 제국의 확장. 한족 왕조는 해금정책과 내향적 대외정책으로 팽창보다는 수비에 치중한 왕조들. 주변국을 기미, 유화, 정복하는 적극적 대외전략 스펙트럼 발명, 이를 제도화하는 행정적 창조성 역시 주변 이민족 왕조들이 중원을 경영하면서 만들어 낸 성과. 중원 한족왕조의 성과라는 것은 “유교적 국제주의” 혹은 “유교적 평화”를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사상적 우수성. 이 역시 이민족 왕조하의 유학의 발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 원의 유학과 청의 고증학 등. 고대 춘추전국 시대의 유학의 발전과 남송 시대의 유학이 가장 중요. 한족의 유학이 최대발전했던 시대는 혼란기 혹은 이민족 침략기라는 사실도 흥미.
- 결국 중심에서 본 사대질서와 주변에서 본 사대질서를 넘어선 중심과 주변이 같이 만들어 온 사대질서라는 시각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동아시아라는 하나의 지역질서가 과연 한족이 생각하는 것처럼 동심원 구조였는가, 아니면 다원적 경쟁체제였는가의 문제. 하나의 제국으로 수렴되는 천명, 대일통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 주체가 되는 천자의 자리를 둘러싼 자유경쟁의 논리를 놓고 볼 때, 동심원 구조는 결과이지 조직원리가 되기는 어렵지 않은가 하는 문제. hierarchy와 anarchy의 교호관계. 서구 근대질서와는 달리 anarchy자체가 조직원리로 정착되지 않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hierarchy, empire로 회귀하지만(제국의 수립, 멸망, 자유경쟁, 제국의 수립의 반복) 이를 위한 경쟁 자체는 anarchy를 인정하는 독특한 조직원리로 개념화해야.